

‘돈벌이 꼼수’ 공분 사는 공영주차장

광주시 북구 민간위탁 ‘용봉천 복개지 주차장’ 불·편법 영업

광주시 북구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남대 후문 인근 ‘용봉천 복개지 공영주차장’이 규정을 무시한 불·편법 영업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8일 오후 방문한 ‘용봉천 복개지 공영주차장’은 주차장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용률이 높았다.

편도 1차선 도로 양쪽에 주차공간(총 주차면수 75면)이 확보돼 있었으며, 전남대 후문 방향은 평행주차방식, 반대편은 사선주차방식으로 주차선이 그려져 있었다.

주차장은 주로 인근 학원이나 전남대 후문 카페·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주 애용하고 있었는데, 각종 위반 사례도 목격됐다.

우선 평행주차 구역에는 1개 주차선 내에 1대만 주차해야 하지만 4개 주차선 내에 차량 5대를 빼곡히 주차하도록 편법 운영하는 바람에 이른바 ‘문콕테러’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주차 차량이 늘어나는 야간에는 평행 주차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주차 관리요원들은 평행 주차선 무시하고 사선주차 유도해 요금을 받았다. 이 방식이면 평행 주차로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최대 2대까지 주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로 양쪽으로 사선주차된 차량의 일부가 도로를 침범하면서 통행하는 차량은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 운전은 해야 했다.

또 각 골목 모퉁이에 운전자들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두고 있었지만, 주차관리요원들이 이 공간마저도 주차를 유도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다. 골목길로 진입하려는 우회전 차량들이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입을 포기하거나 접촉사고를 겪는 사례도 있어서다.

특히 주차선 밖에 있으면 요금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주차요원들은 이를 어기고 요금을 받고 있었다.

사전 요금 징수 조례도 지켜지지 않았다. 북구는 조례에 따라 오전 8시~밤 10시까지 15분 단위로 150원을 받고, 주차 2

주차비 받아 거스름돈 안주고

주차선 무시 주차로 ‘문콕사고’

도로에 주차하고 요금 받기도

주민들 통행 불편·사고까지

“수익구조 맞추려면 어쩔수 없다”

시간 이후부터는 요금을 두배로 받도록 했다. 또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무료로 돼 있으며, 오후 8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요금(대 1200원)을 사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요원들은 오후 8시 이후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미리 돈을 받고 있었으나, 빨리 나가더라도 잔돈을 거슬러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용자의 주장이다. 대낮에도 조례를 어기고 사전에 요금을 징수한 뒤 남은 금액을 되돌려 주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최근 해당 주차장을 이용한 정현민(44·광산구 하남지구)씨는 “점심시간에 잠깐 주차했는데, 미리 1000원을 내고 남은 돈은 돌려준다고 해서 30분 만에 왔는데 거스름돈을 주지 않았다”며 “잔돈 몇백원 때문에 관리요원들과 다투기 싫어 그냥 왔는데, 웬지 속은 기분이 들어 불쾌했다”고 말했다.

주차장 운영 업체에서도 이 같은 각종 불·편법 사례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수익구조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차장 관리업체 관계자는 “주차요금이 턱없이 낮아 북구에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징수하는 주차요금도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주차장이 시민을 위한 공용 주차장이라는 점에서 요금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북구의 최고가 입찰 방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 업체에서 정상 운영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뒤엉킨 차와 사람

18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천 복개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주차차량 때문에 도로에서 차량이 뒤엉키는 등 교통 혼잡을 빚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아직 업체의 어려움 등 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 없다”면서 “주차선 무시 등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북구는 전남대 후문 인근 용봉천 복개도로를 활용해 지난 1990년 11월부터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년 단위로 최고가 낙찰을 통해 민간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무성의한 전남경찰

장흥경찰, 성폭행 피해자 어머니 신고에도 수사 안해 아동학대 수사 “안전사고인 것 같다” 중단…2차 피해

전남경찰이 무성의한 수사 방식으로 범죄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

18일 전남경찰청과 서울도봉경찰 등 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은 지난 17일 5년 전 장흥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씨를 특수간첩 혐의로 구속

했다. A씨 등은 2012년 장흥 한 모텔에서 당시 여고생이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건 이후 충격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뒤늦게 어머니에게 알렸다. B양의 어머니는 경찰 민원상담 전화 182를 통해 장흥 경찰에 딸의 피해사실을 상담했지만 당시 서울에 있었던 A양이 직접 장흥으로 내려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말에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B양도 장흥까지 내려와 조사받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은 서울 도봉경찰이 2011년 도봉구의 한 산에서 벌어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해결한 것을 기억하

고 직접 도봉경찰서로 찾아 정식 수사가 이뤄졌다. 장흥경찰이 능동적인 수사태도를 보였다면, B양이 추가적으로 고통을 겪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장흥경찰 관계자는 “B양 어머니 상담전화를 받았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청취를 해야 하는 데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런 일을 계기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목포경찰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광주도봉경찰의 수사요청에도 아동보호기관측이 ‘안전사고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광주일보 7월18일자 6면>했다.

당시 피해아동(6)은 2차 폭행을 당해 양팔과 다리가 부러지고 간 손상과 담도관 파열 등 내상을 입었다. 왼쪽 눈도 실명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처분 취소하라” 소송

전공노, 항소심서도 패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정관 부장판사)는 18일 전공노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공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고용부는 ‘공무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과 공무원 노조법에 근거해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전공노는 “해직 공무원도 단결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노조법상

근로자”라며 노조로 받아들여 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은 구제 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공노는 2010년과 2013년에도 반려 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각각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두 살배기 아들 살해 시신 훼손 20대 무기징역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

로 구속기소된 아내 B(21)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4년 11월27일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두 살배기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남편과 함께 숨진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광주동부경찰, ‘보도블록 파손’ 총장으로 진입차량 단속

광주동부경찰이 보도블록 파손의 주범인 총장로 진입차량을 단속한다.

동부경찰 경비교통과는 ‘통행차량에 의해 총장로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7월17일자 6면>과 관련해 “총장로 진입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택배차량이나 현금 수송차량 등 불가피하게 총장로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단속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총장로는 도로교통법상 차가 진입하면 안되는 지역으로, 밤 11시~오전 9시까지 2t 미만 상용운반차량의 통행은 허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총장로가 차량통행금지 구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

“꽃을 너무 사랑해서...” 웨딩홀 화단서 꽃 훔친 노인



○꽃을 좋아한 70대 가 화단에 심어져 있던 화초를 훔쳤다

○1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서모(76)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2시 17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있는 모 웨딩홀 출입구와 화단 등에 심어져 있는 제라늄 5그루와 올마 등 20만원 상당의 화초를 뽑아간 혐의.

○경찰은 웨딩홀 측으로부터 “화단에 심어져 있던 화초를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분석 등으로 서씨를 검거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화초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훔친 화초는 다량히 화분에 옮겨 심어져 있어 그대로 전부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김한영기자 yang@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접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0만)
- ★ [건물] 북구 신원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3백)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하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천3백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하1~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65억 근린시설 스포츠타운 최적합
- ★ [토지] 광산구 송정역(KTX) 인근대로변 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관광호텔주변 카페거리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 [토지] 서구 풍암동 녹지지역 입자26,139㎡ 매매 평당7만
- ★ [토지] 북구 삼각동 1중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10억 조정가능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10-6243-3704